

# 신약으로서 가능성이 많은 LSD의 사용에 관하여 합법화 하여도 괜찮은가?

철도경영학과 202310272 강범철

## 1. 서론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줄여서 LSD는 알버트 호프만이 최초로 합성한 환각제 의 한 종류 로 복용 자가 경험 하는 지각, 정서, 기억, 시각 등을 왜곡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LSD에 의한 환각을 경험한 자들의 말에 따르면 “소리를 볼 수 있다”, “색깔을 들을 수 있다” 등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듯 LSD는 복용 자에게 강력한 환각효과를 주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를 마약처럼 사용 하고 있으며 때문에 세계적으로 LSD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사용에 관하여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SD 와 같은 사이키델릭 계열의 약물이 정신병 치료에 효과적 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LSD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서 새로운 정신병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LSD의 정신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본 연구원 들은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합법화를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LSD를 마약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LSD의 사용에 대하여 합법화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필자의 경우 LSD 사용에 관한 합법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근거, 반론, 재반론 순서로 이 글을 서술할 것이다.

## 2. 본론

LSD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법화를 진행해야 하나 혹은 불법으로 계속 단속해야 하나 에 대하여 현재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중이다. 이러한 논쟁이 오가는 이유는 LSD 는 마약으로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정신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국가나 UN의 경우 LSD를 마약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자 불법으로 지정하였지만 의사, 박사 등 다양한 연구원 들은 이 LSD의 정신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합법화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쟁에서 LSD사용에 관해 불법으로 지정하고 계속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근거 2가지 와 함께 아래에 서술할 것이다.

### 2.1 LSD복용 후 일어나는 2차 범죄

LSD는 서론에서 이야기 했듯이 환각제의 일종으로 복용 자가 겪는 다양한 외부경험을 왜곡하며 환각을 겪게 된다. 이러한 환각을 겪게 하는 LSD의 특성으로 인해 LSD를 마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LSD를 마약처럼 사용한 사람들 중에는 복용 후 각종 환각으로 인해 자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연쇄살인마 찰스 맨슨,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의 아사하라 쇼코 등 상당히 큰 사건들을 일으킨 예시가 존재하며 그 외에도 자신의 장모를 칼로 살해하는 사건, 자살사건, LSD투약자들이 공황장애 나 정신이상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등 의 사건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 중 가장 큰 공통점은 모두 LSD를 복용하거나 복용 중에 있었던 것이다. LSD가 주는 환각과 이로 인한 과대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환각과 과대망상으로 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 LSD와 같은 다양한 환각제에 대하여 연구한 티모시 리어리 는 LSD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부작용이 낮은 약물인 마리화나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도의 난이도라면 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LSD는 항공기 운전면허 정도의 난이도라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렇듯 LSD를 복용 할 경우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감각적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투약해야 LSD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LSD를 마약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투약하기 때문에 LSD를 투약 후 2차 범죄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2 LSD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 부족

LSD는 현재 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마약으로써 불법으로 단속 되어 왔다. 이는 미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게 되었는데 미국은 베트남전 당시 이를 반대하던 히피들을 굉장히 눈엣가시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히피들의 전쟁 반대를 막기 위해서 당시 미국 은 히피들이 LSD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국은 LSD에 대해서 다양한 루머를 퍼뜨리게 된다. 게다가 LSD를 1급 마약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UN 이지지 하게 되면서 LSD는 세계적으로 불법으로 취급 받게 된다. 그 후 LSD를 이용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약 22년 후 이며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LSD 에 관한 연구는 대략 2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것을 알아낸 것은 아니다. 게다가 LSD는 뇌에 영향을 주는 약 인만큼 뇌에 대한 연구가 완벽하지 않은 현재시점 에서는 LSD를 복용 하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없다. 물론 LSD는 신체적인 부작용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뇌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SD를 합법화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과학은 지금까지 믿어온 사실에 대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임신부들의 입덧에 좋다고 광고 하였던 탈리도마이드 의 경우 임신부의 태아에 대한 임상시험, 부작용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출시하는 바람에 이를 복용한 임신부 들이 기형아를 낳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따라서 아직 까지 실험이 완전하지 않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 할는지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LSD를 합법화 하는 것은 위험하다.

## 3. 반론/재반론

### 3.1 의료목적 유통 허용

펜타닐, 모르핀은 마약으로 취급 되고 있지만 의사에 처방 하에는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마약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존재하며 LSD또한 정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에 처방 하에 사용 한다면 앞서 나온 LSD복용으로 인한 2차 범죄를 막을 수 있으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LSD가 아직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지 않은 것은 LSD를 불법화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때문에 LSD 사용에 관하여 합법화를 진행하거나 정부의 허가 하에서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LSD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LSD를 연구 목적으로 정부에 허가를 받고 연구하는 곳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합법화의 경우 LSD를 마약사용의 목적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근거를 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확실한 검증과 복잡한 승인, 절차 과정이나 다양한 제약 등을 이용해 마약으로써의 LSD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LSD의 사용을 합법화 하는 것은 마약의 유통에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LSD의 신약으로써의 새로운 기회, 더 나아가 정신병 치료의 새로운 기반을 세울 수도 있다.

### 3.2 의료용 유통의 한계

LSD를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할 경우 말 한대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 목적으로만 합법화 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을 두고 유통, 사용이 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 유통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상 할 수 없다. 밀수입, 자국 내 유통, 심지어는 로비를 통해 마약 오남용을 주도 한 적도 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의사들에게 대량으로 사용해 달라고 로비를 한 제약회사들이 존재하는데 이 제약 회사 들은 펜타닐의 해독제 인 날록손을 제작하는 제약회사로 돈을 벌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들에게 오남용 시킨 사례이다. LSD 또한 마약의 한 종류로 구분 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서의 합법화라는 여지를 줄 경우 사회에 마약이 유통 되지 않을 것 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의료 목적 이라고 하더라도 합법화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4. LSD 합법화 반대 의견에 관한 결론

LSD는 현재 정신병 치료에 사용 되는 신약으로서 각광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LSD를 복용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감각적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환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복용했을 때 이다. 이러한 환각을 견디지 못할 경우 2차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며 부작용 또한 신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을 뿐이지 정신적 부작용은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LSD 가 완전히 부작용 없이 안전하다고 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마약으로써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유통에 관한 관리, 법률, 제재 가 확실하게 성립되지 않는 한 합법화를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마약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LSD는 정신병 치료의 다양한 가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마약에 대한 대책 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LSD의 안정성이 입증 된다면 LSD를 합법화 하는 것이 정신병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부작용을 완전히 파악 하지 못했으며 연구 또한 모자라기 때문에 LSD 사용에 관한 합법화 는 아직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5. 참고문헌

강석기, “[강석기의 과학카페] LSD 르네상스를 꿈꾸는 사람들”, 동아사이언스, 2019년 11월 19일 수정, 2023년 6월 13일 접속, <http://m.dongascience.com/news.php?idx=32439>

헤일리, “서서히 숨 멎는다, 죽음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정체”, BAZAAR, 2022년 11월 22일, 2023년 6월 13일 접속, <https://harpersbazaar.co.kr/article/72527>